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4일 화요일 음 5월 2일 (9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오후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19℃, 낮 최고 기온은 25-26℃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1.0m로 일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the day, including temperature and cloud cover percentages for morning, afternoon, and evening.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moonrise and moonset times, and day/night lengths.

Table with 7-day weather outlook, including daily temperature ranges and weather conditions.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weather information, including UV index and visibility.

월드뉴스

보잉 737맥스 이번엔 부품 결함

美항공당국, 교체 명령

잇따른 추락 사고로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금지된 보잉 737 맥스 여객기에 부품 결함이 추가로 발견됐다.



보잉 737 맥스 여객기.

기종 133대 등 총 312대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737 NG 기종은 737 맥스의 바로 앞 버전으로 보잉 737시리즈의 3세대 라인이다.

FAA는 열흘 내에 문제가 된 부품을 전부 교체하라고 보잉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부품 교체 전에도 운항은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함은 지난 3월 3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참사 이후 FAA와 보잉이 공동으로 진행해온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한리일보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website, and subscription details.

한라칼럼



송창우

농부

봄과 마주치며 다가오는 올해 여름도 심상치 않을 듯하다. 앞으로만 향해 내딛는 시간에서 여름이야 해마다 오고가는 것이지만 초입부터 섭씨 30℃를 웃도는 무더위를 앞세우며 다가오니 말이다.

들과 밭 주변에는 짙레가 하얀 짙레꽃 향기가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오고 별들이 바쁘게 일렁거린다. 짙레라는 식물과 벌이라는 동물은 어쩌면 수십만 년부터 이러한 관계를 맺어왔을 것이다. 이 거래를 위해 짙레는 조분부터 연두에서 진초록으로 이파리를 퍼서 햇빛을 받아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여 뿌리에서 끌어올린 물과 광합성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꽃과 꿀을 만드는 것이다. 식물은 엄청난 에너지를 통해 만든 꿀을 희생하는 대신 알뜰과 수습이 만나 후손을 탄생시킬 수 있고, 벌은 꿀로 새끼를 부양할 수 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자신의 후손을 만드는 일이 본능이기에 자신과 후손을 위한 위대한 거래다.

그렇다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녹음이 우거진 한라산 꼭 밑에서부터 짙레꽃과 고사리와 억새로 뒤덮여 이른 꽃자왈과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해안에 이르기까지 중장비가 들어와 건물을 짓고 날썩한 도로를 뚫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힘을 빼앗았다. 겉으로 보기에 그릴 듯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건물을 들어서고 도로가 번듯하게 깔리면 엄청난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민을 설득한다. 대대

손손 농사를 짓고 서로 부대끼며 잘 살아왔던 농경지를 갈아엎고 말과 소를 놓아 방목하던 오름자락을 잘라내어 새로운 공항을 만들면 그 과정에서 현재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한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이 들어와 제주가 발전하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이 세금으로 길을 뚫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며, 세계와 연결된 섬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꼬드기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살던 덩치가 크고 사나운 맹수들을 들여와 꽃자왈에 풀어놓고 그곳을 밟아서 숙박시설을 지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성산일출봉과 대정정에 있는 송악산도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수십 년 된 아름다운 나무를 잘라내며 도로를 넓히고 있다. 이를 말리는 시민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관광객들이 넘쳐나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다시 잘라내고 부수고 있다. 차분하고 소박한 삶을 찾아 제주에 왔던 사람들은 자연이 숨 쉬는 다른 지방으로 떠나고 있고, 제주에 매력을 느껴 제주를 찾았던 사람들은 제주를 외면할 지도 모른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 강정동에 해군기지를 민간 관광미항이라는 미명 아래 바닷가에 까마귀쪽나무가 자라던 구름비바위와 해안선을 폭파하고 매립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폭행하고, 인권을 무시한 행위를 하면서 완성했지만 마음과 몸으로 겪었던 고통만큼 우리 삶의 질이 나아졌는가. 제주의 공동체를 해체하고 있는 이 행태는 벗어나야 한다. 시간은 앞으로만 간다. 부수면 공간도 되돌릴 수 없다. 후손도 생각하는 식물과 동물의 진화된 거래방식을 배워야 한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열린마당

불법 방문판매, 조심 또 조심!



김지원

제주시 경제지원과

사무실에 있다 보면 종종 판매인들이 작게는 양말, 크게는 고가의 건강보조제, 금융상품 등을 홍보 및 판매하러 온다. 이처럼 사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와 상품·서비스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방문판매'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방문판매'하면 직접 찾아가 판매하는 행위만을 떠올리지만, 이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상판매, 홍보관 등도 포함된다. 이처럼 방문판매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방문판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 잘 안다고 자신하는 나 또한 이성적 판단이 흐려질 때가 많다. 내 앞에 있는 건 할인이 잔뜩 적용된 상품, 그리고 계약서와 펜이다. 나도 모르게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방문판매는 특성상 판매인이 고객에

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와 판매를 하므로 소비자가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없고, 소비자가 판매자와 상품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판매자의 주도하에 대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런 영업방식에서 다소 강압적이고 허위, 과장된 설명이 행해지기 쉽다.

가끔 미등록 업체의 방문판매, 노인층을 노린 뺑뺑이, 대학교 내 신입생을 표적으로 한 불법 방문판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곤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판매를 하는 업체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방문판매명 명부 작성, 무조건 청약 철회 등 지켜야 할 의무가 뒤따른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신고 업체가 많고, 신고하더라도 법적 의무를 잘 지키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

방문판매 행위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을 시엔 경찰 신고,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업체의 신고 여부, 계약의 합리성, 청약철회 숙지 등 소비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WHO의 결정과 국내 게임 산업의 미래



전연희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3학년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게임 이용장애(게임중독)를 질병으로 규정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개정안의 국내 도입을 두고 게임업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e스포츠 육성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던 지역들도 이러한 WHO의 결정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e스포츠 대회 유치 등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3억2000만 원이던 게임 산업 육성 예산을 올해 4억 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 문화경기장에서 개최된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 무려 3만 여명의 관중이 운집하는 등 게임 산업의 잠재력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한 2017년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콘텐츠과를 신설한 데 이어 대중문화산업팀을 새로 만드는 등 e스포츠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경기도는 지난달 12일, e스포츠 육성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국제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인 '월드 이스포츠 챌린지 2019(World esports Challenge, 이하 W.E.C)'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5개국 170여명의 아마추어 선수가 참가했다. 도는 각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국 대표팀에 도에서 추진 중인 아마추어 이스포츠 선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WHO의 이번 결정으로 이러한 인천과 경기도 등의 게임 산업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규제할 경우 한국 게임 산업의 손실 금액이 2025년 최대 5조20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WHO결정의 국내 도입은 게임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Grand Protection advertisement for car maintenance services, including battery replacement and oil changes.

Donggu Dental Clinic advertisement for dental services, including orthodontics and general dentistry.

Jeju City Government advertisement for various events and public notices, including a festival and a job fair.

Jeju Agricultural and Livestock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various agri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